

SAMC | LAW REVISION

1. 지르코늄광 등 「생활방사선법」 대상 세관장확인물품 ‘원자위 승인 必’

5월 27일 수입신고 분부터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이산화지르코늄, 염화칼륨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원자위 승인(확인)이 19개 품목의 수출입요건을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 대상 확인을 위한 ‘방사성핵종 농도분석서’를 미리 취득해 원자위에 제시해야 한다. 부정확한 방법으로 등록해 이들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ad More](#)

2. 코로나19 고려, 외국환거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해외 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 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 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올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3. 제2의 코로나 차단”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앞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추적관리가 강화된다. 일부 동물에 한해 수입허가제를 운영해왔는데, 모든 야생동물을 신고하는 것으로 바꾸고, 파충류와 양서류에도 새로운 검역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전용 수입항을 지정함으로써 검역통관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정부, 7월부터 中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90% 지원

7월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이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관세청은 세관 검사로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 검사일 기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어야 한다.

[Read More](#)

2. 일시 수입 후 재수출물품에 한시적 담보 제공 생략

기업이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당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가 한시적으로 생략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6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 생략의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하면 된다.

[Read More](#)

3. 車·항공·정유 등 코로나 피해 기업 관세조사 1년간 유예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수출 감소, 영업 적자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5대 주력 산업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재 기업 등을 돕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 등도 유예 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되고,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 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관세청, 7월부터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제공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 대상 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 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생산 기업, 섬유·의류·자동차 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이다. 관세청은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확인할 방침이다.

[Read More](#)

2. FTA 종합지원센터, '비관세장벽 종합 컨설팅' 개시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는 6월 10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비관세장벽 종합 컨설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미국·중국·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무역제한 조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FTA 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80)로 전화하면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시 상담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심층 컨설팅도 신청할 수 있다.

[Read More](#)

3.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 'HS국제분쟁신고센터'로 연락주세요"

관세평가분류원은 국가 간 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은 국내 유일의 품목 분류 전문기관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HS신고센터는 2007년 이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고, 이들 기업은 4,000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분류원은 올해부터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분쟁 대응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한 중 일 식품안전기준 통일 추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부는 한·중·일 3국의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3국의 식습관 및 생산환경이 유사하고, 식품시장 규모가 세계시장의 28%를 차지해 아시아와 세계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나, 식품안전 기준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수출제품 부적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해 통용 가능한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해 식품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한편, 식품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d More](#)

2.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방안 [식의약 안전 열림포럼 2020]

식약처가 과도한 식량낭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식품의 소비 '권장' 기한이 아닌 실질적인 식품 소비 '가능' 기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적 소비기한을 설정해 식품 유통환경 및 소비자 인식개선, 올바른 식습관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식품 소비기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신뢰도를 향상시켜 식품 폐기량 감소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3. 건강기능식품섭취 주의사항, 정보표시면에 표시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주 표시면에 영양·기능 성분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타 원료 강조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예방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이 제품설명서에 동봉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규정이다. 또한, 주원료와 기타원료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원료의 명칭 및 이미지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